

	독 일 ( 프 랑 크 푸 르 트 ) 사 무 소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훈 희 소장
		일 시	2 0 2 4 . 1 .

## CEPA Insight

- '24년도 독일 인플레이션 및 기업생산량 회복과 소비자 구매력 상승 전망
- 중동 해상 물류 불안정성, EU공급망 실사법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

### □ 2024년도 경기 전망

#### ① (인플레이션) '23년 독일의 평균 인플레이션 5.9% 기록, 12월에는 3.7%

- 식품은 특히 12.4%로 급격히 상승하여, 거의 모든 식품에 영향

빵·곡물	유제품·계란·설탕·기타과자류	버터
+16.4%	+15.7%	-17.8%

- 인플레이션은 '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  - 1월 인플레이션은 '23. 12월 수준, 2월 이후 하락 예상(IMK 연구소)
  - '24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2.5%로 하락 전망

#### ② (기업생산량) '23.11월 0.7%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

수출의존산업	에너지	건설
-0.5%	+3.9%	-2.9%

- 연방경제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수주·사업 환경 등 현재의 선행 지표를 고려할 때 산업경제의 빠른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
  - 경기회복 등을 고려해 '24년 하반기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

#### ③ (소비자 구매력) '24년 중 +2.8% 상승 전망

- '24년 독일 소비자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여 연간 27,848유로(전년대비 +2.8%), 총 구매력은 약 2조 35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

\* 출처 : Spiegel(<https://www.spiegel.de/>)

### □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 이슈에 따른 해상물류 비용 및 기간 증가

- 독일 공영방송(ZDF)에 따르면, 해운업계는 후티 반군의 공격과 파나마 운하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물류 사업의 큰 도전에 직면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올해 들어 수에즈 운하의 해상 교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% 감소했다고 발표

-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5위인 독일의 하팍 로이드 등 주요 글로벌 해운사는 선박을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 운항 중으로 항해 기간은 일주일 이상 늘어나고 비용도 상승
-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서, 현재 한국에서 독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은 주로 이 경로를 통해 운송(독일의 동아시아 수입품의 3분의 2 규모)
- 이 루트의 불안정성은 최종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
- 영국 해운 컨설팅업체 드루리에 따르면 1월 12~18일 40피트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전 세계 평균 비용이 전주 대비 23% 증가한 3,777달러를 기록했으며, 지난 한 달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
- 수에즈 운하의 불안정성, 아프리카 남단 등 해상 운임 증가는 한국 기업들에게 운송 방식의 다양화, 비용 리스크 대응 능력 등 요구

\* 출처 : 독일 공영방송(<https://www.zdf.de/>)

## □ BMW, 2027년 이후 뮌헨 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 예정

- BMW 그룹은 뮌헨 공장을 전기차 생산에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
  - 현재 뮌헨 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는 최대 200,000대
  - '21년 뮌헨의 내연기관 차량 생산시설을 영국·오스트리아·중국으로 이전했으며, 향후 3년 동안만 내연차가 뮌헨 조립라인에서 생산 예정
- BMW는 '30년까지 연간 최소 150만대의 전기차 생산 목표 설정
  - BMW는 '23년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달성했으며(255만 대), 이 중 85%가 내연차에 해당, '30년까지 생산 및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설정

\* 출처 : Handelsblatt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>)

## □ EU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 전망에 따른 대응 강화 필요

- '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(LkSG)\*에 이어 EU의 'EU의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(CSDDD: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)' 이 EU 의회 본회의를 통과('23.12.14.)
  - 이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한 것

- \* '24년부터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적용은 고용인원 수 3,000명 → 1,000명 이상기업으로 확대
- 새로운 실사 의무는 업스트림 비즈니스 관계(예: 공급업체) 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활동(예: 판매 또는 재활용)을 포함하는 가치 사슬에도 적용
- 환경 및 인권보호 외에 '기후보호' 포함,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이 파리 기후협정 목표(지구온난화 1.5° C 제한)에 부합해야 함
- 시행 시기는 순차적으로 적용, 지침 발효 후 2년간 회원국 내 자국법 전환기간을 거치며 지침 발효 3~5년 후(전환 기간으로부터 1~3년 후)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기업별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
- 기업은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더불어 전반적인 ESG 경영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 제기

\* 출처 :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제90호(KOTRA)

## □ AI 수요 급증으로 IT 전문인력 부족 현상 가중

- '23. 1분기 독일 AI 분야 채용 공고 수는 16,387건으로, 종전 최고치인 '21. 1분기 19,546건 대비 12% 증가
- 특히, BI(Business Intelligence)와 빅데이터 분석 등의 부문에서 수요 급증
  - '23.1분기 AI 전문인력 채용 분야는 BI·빅데이터(72%), 컨설팅(29%), 연구분야(13%), 로보틱(12%), 자율주행(11%), 이미지처리(7%) 등
  - 非 IT 기업의 AI 전문가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, 지역적으로는 남서부와 베를린, 함부르크, 브레멘 등에서 AI 채용이 집중
- 독일 IT 전문인력 부족 현상은 AI 수요 급증과 맞물려 심화될 전망
  - 현재 필요한 IT 전문인력의 수는 약 15만명으로, AI 도입으로 인해 인력 부족의 해소가 전망됐으나, 규제 및 복잡한 고용절차로 인해 지연

\* 출처 : 독일 경제·기후보호부(<https://www.de.digital>)

## 참 고

## 2024년에 달라지는 독일의 주요 제도

- **[최저인건비]** 시간당 '23)12유로 → '24)12.41유로(3.30%) → '25)12.82유로(3.24%) 인상
- **[친환경 에너지 전환]** 건물에너지법 개정 시행('24.1.1.)
  - 신규 설치하는 건물 난방시스템은 최소 65%의 재생가능 에너지로 구동할 의무 신설, 개인 난방시스템 설치 시 최대 70%까지 보조\*
  - \* 기후친화적 난방시설 30% + 저소득층 주택소유자 30% + 기후속도보너스 20%
- **[에너지]** 난방세 재인상(7→19%) 및 CO2 가격 인상(30→45€/t)
  - 7%로 인하되었던('23.10.) 가스 및 지역난방 판매세가 다시 19%로 인상('24.3.)
  - 휘발유·디젤·난방유·천연가스 CO2 가격 '24년부터 30 → 45유로 인상
- **[플라스틱세\*]** 국가별 세수로 이전되었던 플라스틱세를 각 기업에 부과
  - 이는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
  - \* '21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시행, 각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은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.80유로(1t당 약 800유로)를 EU에 납부
- **[배터리]** EU 배터리 규정 시행('24.2.18.), 배터리 생산·폐기 환경보호 강화
  - 배터리 CO2 배출량에 대한 신고 및 라벨링 의무
  - 폐배터리 재활용 및 수집 목표 준수 의무 등 연차적 시행
- **[의료]**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('24.4.)
  - 만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g 공공장소 소지 및 50g 분량 가정 재배 허가
- **[자동차]** 전기차 신차 구매 보조금제도 중단 및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
  - 전기차 사용 장려를 위한 환경 보너스제도 운영 마감('23.12.17.)
  - 독일 내 신규 등록 전 차량 대상 블랙박스 설치 의무('24.7.)
- **[전자제품]**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
  - 독일 내 판매되는 전자제품에 USB-C 표준 충전단자 적용
  - ※ 스마트폰, 태블릿, 전자책 리더기 등 충전과 휴대가 가능한 모든 중소형 기기에 적용
- **[환경]** 유제품에도 1회용 예치금 제도 확대
  - 슈퍼마켓·음료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유제품(일회용 용기에 담긴 우유 및 캔에 담긴 우유 혼합 음료)에 대해 25센트의 1회용 예치금\* 의무 적용
  - \* 기존에는 물, 맥주, 혼합 음료와 같은 기타 음료에 적용

※ 출처 : 독일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(<https://www.bundesregierung.de/>)